

연중 제 6 주일

숲 정 이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마태 5, 19).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기도서 347면 (A해)

제1독서: 집 회 15, 15-20

제2독서: I 고린 2, 6-10

복 음: 마 태 5, 17-37

강론



계명을 넘어선 사랑

배 영 근 신부

궁극적으로 인간의 목적은 하느님과 같이 완성되는 데 있다(마태오 5, 48).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그 완성이나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잡이나 표준이 되는 것으로써 율법 특히 십계명 등이 있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하게 완성에 도달하는 길이라 믿고 매달려 노예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되었다. 사실 인간은 원조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할대로 타락하여(로마서 1, 28~32) 죄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기에 율법없는 죄 속에 있는 줄도 몰랐으나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유대교 가운데서 가장 율법에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온갖 충성을 다하기 위해, 이미 율법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전격적으로 변화되어 철저하게 추종했던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신학은 매우 복잡하여, 율법을 지키므로써가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율법을 초월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하신 분이기에 율법의 척도나 율법 자체가 필요없으셨으나 그래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초월하셨다.

어느 면에서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원덕에 나아가는 최소한의 단계로써 계명은 필요한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의 깊은 의미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자유롭게 초월하지도 못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 왔다... 또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보다 더 옮겨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즉 오늘 복음의 깊은 뜻은 율법의 자귀에 매달린 그들에게 율법만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아울러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찾게 하고 그 깊은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율법을 초월하여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정의(正義)를 실천하도록 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신 것이지 계명의 증감이 아니다. 사랑은 실로 모든 계명을 포함하면서도 뛰어넘는 것이다. (교구청)



비온 뒤 맑음

고 박종철 군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는 2·7 국민추도회가, 당국의 원천봉쇄에 막혀 뜻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연도의 시민들이 보여준 큰 관심과 경적소리는 국민들의 진일보름 가져온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투석으로 최루탄에 맞서는 젊은이들에게 자제를 호소한 시민정신도 우리의 맑은 내일을 약속하는 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몇몇 법관들이 보여준 의연한 자세는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 하나는 전주지법의 김 판사가 죽음에 넘겨진 최양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추도회를 주도한 노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한 판사, 윤 부장판사, 조수석 부장판사, 홍 부장판사가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가끔은 아쉬움을 주었던 사법부의 양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번 추도집회는 고문피치와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에 자성을 촉구하는 취지를 갖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시위와는 달리 자목이나 화염병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좌경구호도 치지 않는 등 평화적인 시위였으며,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없었다.”(동아일보 2월10일자 11면)

평화적 시위가 무엇이고, 평화적 시위에 따른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뜻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과열된 현 정국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촉구하는 시대의 징표임에 틀림없다. 불순세력은 시위대들이 추려내야 하고, 정부는 인체에 그토록 해롭고 국민재산을 축내는 최루탄 사용을 금해야 한다. 비가 아무리 와도 언젠가는 해가 뜨는 법이다.

숲 정 이 산책



□ 선교사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페루에서 선교활동 중에 계시는 세 분의 신부님과 그곳 교구장이신 안토니오 주교님께서 편지를 보내 오셨다.

존경하을 미카엘 주교님

(생략) 최근에 저는 정요셉(승현) 신부님이 제신 Jumbilla에서 한 주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스페인 말을 아주 잘 하시고, 그곳 신자들은 정신부님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신부님도 매우 기뻐하고 또 그곳에 같이 계시는 수녀님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은 대단히 사도적이고 봉사적입니다. (중략)

저는 Lapecca에서 방신부와도 같이 지낸 바 있습니다만 방신부님 역시 젊고 또 대단히 훌륭한 신부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유모어 감각이 뛰어난 신부입니다. 역시 그곳 신자들이나 수녀들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귀 교구에서 이렇듯 훌륭한 신부님들을 저희 교구에 파견해 주신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교님과 교구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페루 차차뿌야 교구 안토니오 주교

(생략)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 없이 바쁘니다. 지금은 수녀들이 다 휴가중이어서 저 혼자 집을 지킵니다. 3월까지 이런 생활입니다. (중략)... 저더러 휴가 가라지만 어찌 신자들을 버려두고 휴가잡니까?

클리부터 교구사제 피정입니다. 그때 방신부를 만날 것입니다. (중략) 매일 보람있게 사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고 주교님 이하 교구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 (1986년 설날 그림 정 승현 신부 올림).

(생략) 저는 지난 12월 2일 오전 6시에 Perù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리마성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방신부는 바구하에 있고 이곳에서 비행기로 2시간 가야 됩니다. 맹장수술은 아주 잘 되어 지금은 건강합니다. (중략) 다음에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리마에서 김 윤섭(안셀모) 신부 드림.

늦은 줄 알지말 새해 인사 드립니다. 저는 약 보름 전부터 바구아 본당의 공소 비슷한 La Peca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소라 하지만 주민수도 제법 되고 미사 참석자도 많은 곳입니다. 멕시코에서 파견나온 수녀님들 집에서 거처하고 있는데 이곳 신자들이 사제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략)...아직도 언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조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전파는 탈로써 보다 신부 자신의 표양이라고 생각하기에 부끄럼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배성사, 세례성사, 병자방문 등 이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강론도 준비하고요. 특히 어린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틀린 이곳에서 음식 때문에 수녀님들을 걱정시키고 있지만 차츰 습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략) 여러 신부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La peca에서 방 의섭(베드로) 신부 드림.

주소 : P Jose S.H. Jung
Parruquia de Jumbilla
Diocesis de Chacha Poyas
Bongara, Amazonas
PERU

Anselmo Kim Y.S
Apdo 3840, Lima 100
PERU

P. PEDRO E. BANG
Apdo, Postal 25
Bagua Amazonas
PERU

■ 강조되어야 할 선교정신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근본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중략)

이 시대에도 이 교장에서 하느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활동은 자기 교장에서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하는 지상과제입니다. (중략)...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의 발전을 얻었다면 이제 그들의 은덕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구가 이미 1984년 한국교회설립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뜻을 굳히고, 50주년을 맞아 세 분의 교구 신부를 해외에 선교사로 파견하게 된 것은 꼭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 분의 신부들은 페루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장 선교를 위해 애를 썼던 선교사들의 은공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파견한 선교 신부들의 활동을 적극 돕고, 충분한 뒷받침을 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분의 선교사 신부를 파견하였지만 앞으로는 수도자와 평신도 선교사도 기대합니다. 최초의 자치교구로 발족된 우리 교구가 선교하는 교구로써도 앞장서는 교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87년 교구장 사목교서 발췌)



김 성 의 소 아 과

소아과 전문의 김 성 의 (아네스)

정주 ☎ 33-3399

33-3398

(제일은행→구시장통)

“웅변을 배우시다 발표력을 기릅니다”

87학년도 유치반 원아 모집

호남웅변학원(구 서중학교 로타리)

새호남 웅변 미술학원 (전주역 앞)

호자웅변학원(삼천동 쌍용APT 앞)

원장 유병철(베드로) 원감 박경애(안젤라)

☎ ③3284 • ④3948 (야간) ③4766



교 구 소 식

1. 교구 혼인법원 : 19일(화) 오후 2시, 장소-교구청 사목국
2. 노동자를 위한 월례미사 : 일시-18일(수), 장소-가톨릭센터 3층
대상-시간이 없어 미사 못하는 노동자
3. 전주교구 여성 제22차 동창회 모임 : 17일 오전 10시, 장소-동산 전주교회
준비물-길잡이·묵주·미사도구
4. 대학생 동계피점 : "현대의 사도가 되자", 일시-18일 오후 2시~19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대상-전대학생(신입생 포함)
회비-4,000원, 접수-16일~17일 교육국
5. 사제어머니 모임 : 일시-20일(금) 오후 1시
장소-강덕행 신부님 어머님택(신수탕) ※ 새로 서품되신 두 분 신부님을 모시고
6. M·E 16차 재모임 : 22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7. 착한 목자 수녀회 성소모임 : 대상-성소에 관심이 있는 미혼여성,
시간-22일(매월 네째주) 2시30분~5시, 장소-전주 가톨릭센터
주최-착한 목자 수녀회 (02)463-8055, 서울 성동구 성수2가 5-8
8. 제11기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지성인을 위한 가톨릭 신앙강좌) : 개강일시-3월 6일
(금)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접수-2월 27일까지 교육국
대상-20세~50세(고졸 이상으로 본당에서 교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분)
영세일-10월 1일, 교리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전주 윤정이 → 치명자산(오후 2시~4시)					
일	요일	담당신부	일	요일	담당신부
15	일	배영근신부	22	일	김병운신부

[중·고등학생 여러분께 알립니다]

교구 홍보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보로 「어린이」, 성인들을 위한 주보로 「윤정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교구 청소년(중·고생)들을 위한 주보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주보의 제호(이름)를 공모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한 주보인 만큼 여러분들에 의해 주보 이름을 짓고 싶은 것입니다. 예쁘고, 성스럽고, 그리고 멋진 주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관계엽서에 정확한 주소와 주보 이름 공모라고 써 주시고 짓고 싶은 이름을 적어 보내 주시면 채택된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본당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보낼 곳 : [520] 전주 우체국 사서함 32호 전주교구청 홍보국

♣ 잡 간 !

가톨릭 무료 개안수술 안내

가톨릭 병원협회가 주관, 200주년 기념 계속 사업으로 실시중인 가톨릭 무료 개안 시술사업 1987년 시행사업이 2월부터 전국 12개 지정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의료보호 2중 의료 부조대상자 및 생계가 곤란한 사람 가운데서 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 환자가 무료 수술 대상이 됩니다. 신청절차는 지정병원에서 배부하는 개안수술 신청서에 본당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병원에 제출합니다.

- 개안수술 지정병원 : 전라북도 북부지역 거주자...대전 성모병원
전라북도 남부지역 거주자...광주시 강동 홍안과 병원
- 문의전화 : (02) 593-5141 구내 1330 가톨릭병원협회

요심이 (706) 김병오



직원 모집

1. 자격 : ① 고졸 이상
② 미혼 여성
③ 영세후 3년 이상자
④ 전주시내 거주자
2. 서류 : 이력서 1통
3. 근무처 : 센타 휴게실
4. 마감일 : 87년 2월 18일
천주교 전주교구청 관리실

군산가방

- 각종가방 • 혼수합가방
 - 지갑 여행구 • 모든 학생 책가방 • 각종pr 마춤가방
- 교우님들의 이용바랍니다
엄미카엘 · 진요안나
군산시 평화동 전북은행앞
(2-5872)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생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바오로
신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베소라성서 강의 전도의 방법과 그 준비

— 傳道訓 第二 —
(마태 10:7~10)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회비 : 매주 1,500원

주단·포복·수예품·명주승
목화춤·이불마춤 전문
흔수백화점

아리랑 주단

전주시 전동 3가
(남부배차장 옆)
오도민고
☎ 2-7203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75-2203

남 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이재후
수·사 2-7032 사목회장 노인석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소(결혼, 평신도직)와 특수성소(성직, 수도직)에 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2. 가정방문: 2월 17일-중노2가 10구역, 18일-중노2가 6구역, 19일-인후6구역, 20일-인후8구역
해당 구역원들께서는 대기해 주세요
 - 수요성서 개강: 18일부터 매주(수) 저녁 7시30분
대상-전신자, 준비물-필기도구, 수강자 접수바람
 4.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주일학교 졸업 및 종업식: 21일(토) 오후 4시, 어린이 미사후. 자모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6. 대견회 모임: 22일 공식미사 후
 7.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해설-임영빈, 독서-봉헌-윤석연·정옥순, 신자기도-손소부·박명진, 촛불봉헌-문명석·김명선
저녁미사: 해설-이양구, 독서-봉헌-유창원·윤민자
신자기도-황병호·박해경, 정장을 하고 참여합니다
 9. 공동체 묵상회: 2월 23일 오후 4시-2월 25일
참가비: 25,000원, 장소: 내장산
- 지난주 봉헌금: 624,990원 교무금: 513,000원
신축현금: 14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감덕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환웅
수녀원 2-2276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제대회: 18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3. 가정방문: 17일-18일 오후 1시30분
 4. 예비자교리: 중·고생-토요일 오후 6시
일반-주일 공식미사 후, 직장인 교리반 모집-17일
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5.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7시30분
본당 청년들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6. 금주전례: 해설-김은경, 독서-①민병석 ②김한기
차주전례: 해설-고현주, 독서-①장기호 ②김기열
- 지난주 봉헌금: 351,73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이덕근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병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 ☆ 수녀님 인사이드: 조 레지나 수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공식미사 후 총병식이 있습니다
1. 올드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레지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3. 성화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병자방문(봉성체): 2월 20일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어머니성가대 임원선출: 단장-이결용, 부단장-윤
림자, 총무-백홍자, 회계-최윤정
 6. 주일학교 자모회: 2월 17일 오전 10시반
 7. 주일학교 졸업식: 2월 22일(어린이 미사후)
 8. 유치원 졸업식: 2월 13일 무사히 끝났습니다
 9. 전례담당 희망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10. 예비자 교리안내
일요일(성인)-공식미사 후(11시30분)
토요일(학생)-오후4시30분, 화요일(노인)-오후2시
수요일(직장인)-저녁미사 후(7시30분)
 11. 50주년 기념현금 신입바랍니다
 12. 다음주 50주년 특별현금 있습니다
 13. 차주전례
첫 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배한수 ②최정석
8시 30분: 해설-방유경, 독서-①조풍기 ②이형중
공식미사: 해설-최중만, 독서-①유기동 ②이영태
- 지난주 봉헌금: 1,059,690원 교무금: 850,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성원
수녀원

1. 구역모임: 18일 저녁 8시, 다가동 2반 이귀남백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부녀회: 19일 오전 10시미사
 4. 병자봉성체: 20·21일
병자 계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람
 5. 유아세례: 21일 저녁 6시
 6. 주일학교 졸업식: 21일 어린이미사 후
 7. 사목회: 22일 오후 2시
 8. 심회(재속형제회): 22일 오후 2시
 9. 청년성가대 성가연습: 매주일, 매주 목요일 저녁미
사후(빠짐없이 참석)
 10. 대학생회: 매주일 오후 4시
 11.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공사현금 완납바랍니다
 12. 금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올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13.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최창기 ②유두석
봉헌-육경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천진 ②장기연
봉헌-신일관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8,350원 교무금: 449,550원

(평화동)

사제관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사목회장 김광환

1. 가정방문: 17일 오전 10시-1반, 오후 2시-2반
18일 오전 10시-3반, 오후 2시-4반,
19일 오전 10시-5반, 오후 2시-6반
20일 오후 2시-13반
 2. 중·고학생 예비자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 자선익날: 매주 수요일 미사 봉헌금 있음
 4. 구역반장 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5. 사제관 비품기증: 익명-15만원
 6. 금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박종구 ②박형석
봉헌-13반장 가정
차주전례: 해설-박종구, 독서-①정형석 ②오우근
봉헌-1반장 가정
- 지난주 봉헌금: 208,000원 교무금: 154,000원
신축현금: 1,724,135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중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정선
수녀원 2-4804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정우

1. 중·고생 및 청년 공동미정: 22일 오후 2시~23일
오후 7시, 주제: 성체와 교리
신청-오늘까지 사무실 및 학사님
 2. 청년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형제회 일정: 17일-외어두(정찬수), 내어두(김
중순), 석장(한동관) 상·하 신광(성담)
18일-신홍(안복성), 백암(최상운), 내정(이우자),
서당(서병록)
20일-의암(최학순), 마계(장진수), 수월(김영찬),
원신(여정진)
21일-공기(노천규), 색장·기타
 4. 축! 회갑: 오늘, 신룡 김매련(다마스)
주님의 풍성한 은혜 듬뿍 받으시길...
 5. 50주년 현금: 3만원-김중영, 1만5천원-박지철,
1만원-김중순·김매련, 7천원-김내곤, 5천원-김
단오
 6. 감사: 숲정이-김병일 1주파
 7. 우정의날: 26일(목)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45,380원 교무금: 100,500원

1. 다음주일은 50주년 현금주일입니다
 2. 밤히오리다: 50주년 기념책자 판매-1천원
 3. 목요일 미사시간 변경: 오전 10시로
 4. 참기름·들기름 판매: 글라라희
 5. 본당 올드레아: 23일 7시
 6. 모임: 오늘-성모회, 차주-자모회
- 지난주 봉헌금: 757,440원 교무금: 596,000원